

. 학회장 인사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예술 심리치료 학회 학회장을 맡고있는 건양대학교 박완용 교수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건강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게다가 최근 뉴스에서 묻지마살인 등 사회적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 복지부 내년예산에 ‘마음투자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500여억원이 배정되었고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앞으로 5년동안 5000억 정도의 예산채정으로 상담인력 5만명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상담자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상담사 법제화의 흐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발의 되었고 소위원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본 학회는 예술 심리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추계학술대회 테마를 ‘임상장면에서의 예술치료’ 로 정하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동작치료, 그림책을 중심으로 실제임상장면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저희 학회는 이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제시에 부응하고 예술치료에 대한 효용성과 학회 자격증의 경과조치를 위하여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의 내용과 같이 여러 학회와 연합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움직임과는 별도로 실제 임상장면에서 예술치료의 효과성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학문적 영역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서 그 치료적 성과를 내담자들에게 경험케 하는 것도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고견이 여러분의 예술치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학문적 성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5일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회장 박완용